

제 9차 세계여성학대회가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이화여대에서 개최됐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79개국 2063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환경, 미디어, 과학 등 20여개의 소분과 주제 아래 500여개의 분과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약 28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젠더와 종교(Gender & Religion)' 주제의 소분과를 통해 여성과 종교

### 제9차 세계여성학대회 불교 관련 분과토론 관심 집중

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중 불교관련 분과토론은 ▲한국불교여성의 종교체험 명명하기 ▲일본불교의 성문제 ▲아시아의 여성과 전통종교 ▲대만불교의 여성 지도력 ▲천성산을 감싸 안은 인류-도롱뇽의 초록공명: 지을 스님 등 모두 5개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대만, 일본 등에서 참가한 학자들의 논문 13편이 발표됐으며 여성불자들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고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 여성, 불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나

한국사회의 소수자, 여성의 권리와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에 불교는 어떻게 깊잠이가 되고 있을까? 이번 대회를 통해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논문은 7편. 이들은 각각 조선시대, 근·현대 등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접근으로 한국 여성불자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봤다. 더불어 조선시대 유교전통이라는 틀을 거지며 함께 억압받던 한국불교와 여성은 필연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왔다는 해석도 제시됐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불교를 이끄는 중심적인 힘이 여성에게 있다고 평가했다.

### 조선조 여성과 불교 '동맹관계'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김성은씨는 조선실록 등을 근거로 "유교전통에 의한 억압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조선시대 여성과 불교는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며 "필박받은 현실에서 벗어나 주체가 될 수 있는 절에서 여성들은 위안을 얻었으며 승유정적으로 실자리를 잃어가던 불교는 사찰을 찾는 여성들에게 의해 존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21일 분과토론 발표자 황혜숙(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원 강사)씨 역시 "13세기 조선시대 신유학파가 성행하던 때 불교와 여성은 모두 소외받는 존재였다"고 전제한 뒤 "한글창제와 함께 유학자들에게 경시됐던 불교경전이 유교전통의 소수자인 여성에 의해 활발히 번역됐다"고 설명했다. 불교를 통해 여성의 권익 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은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계속됐다. 박진영 교수(미국 아메리칸대)는 한국 근대사회의 대표적인 신여성 김일업 스님과 나혜석의 비교를 통해 두 여성의 자아(참나)를 찾는 과정에 있어 불교가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두 인물은 모두 억압을 강요 당했던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자아해방을 갈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불교는 이들에게 한 인간으로서 참나를 찾기 위한 과정이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여성불자의 숫자



79개국 2063명 여성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진 세계여성학대회 개막식. 오른쪽에서부터 윤후정 초대 여성학회장,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네번째가 영부인 권양숙 여사, 여섯번째가 장필화 대회조직위원장, 거트루드 몽켈라 범아프리카회의 의장. 사진=고영배 기자

### 79개국 2063명 참가... 불교관련 논문 13편 전세계 여성불자 아우르는 분과 토론 아쉬워

와 규모는 남성불자에 비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그들의 역할과 이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마르씨 미들브룩스(서울대 종교학 석사)씨는 '한국의 근대신앙 정의' 논문을 통해 "여성중심적 불교를 흔히 '차마불교', '보살불교'로 일컫는데 이러한 '기복'이 소극적 수행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여성 수행을 고무하지 않는지 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미(동국대 박사과정)씨는 "여성수행을 증진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탈가부장적 사고"라고 덧붙였다. 여성불자들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여성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장치와 기회가 늘어나고 있어 전망은 밝다.

김인숙 불교여성개발원장은 "한국사회의 여성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불자들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세미나, 여성강좌 등 교육 프로

그램 뿐 아니라 교도소 교화활동, 호주제 폐지 운동 등 사회 각층의 문제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한국여성불자의 영역을 새롭게 넓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는 또 한국불교 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불교권 국가들의 여성불자의 현황과 활동, 영향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은수 교수(서울대 철학과)는 "특히 일본불교는 최근 활발한 연구교류가 이뤄지는 한국, 대만불교에 비해 공론화 되지 않은 편"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그동안 공금했던 일본불교의 현황을 접하게 됐다"고 평했다.

### 일본불교 여성 역할 미약

20일 열린 일본 여성불교 분과토론은 여성불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카노 하루코 쿠니군데 세이센대 교수), 다테야 천도재(히비노 유리 가나자와대 박사과정), 여성의 성지출입 금지(미나모토 준코 킨

시대 교수) 등 일본 여성불자의 지위와 현실을 드러냈다.

오키노 교수는 "금욕주의적 특징으로 인해 일본불교에서는 여성이 마력적이며 수행에 위험적인 존재로 왜곡되어 왔다"며 "오늘날에도 잔존해 있는 이러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가불자들의 조직화된 사회참여 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대만불교의 중심은 여성이었다. 23일 '대만불교의 여성지도력' 분과토론을 통해 줄리아 후양(대만 청화대학) 교수는 쥬엔(證嚴) 스님이 설립한 대만의 대표적인 재가단체 자제공덕회의 구조와 특성에 나타난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후양 교수는 "카리스마적인 여성 종교지도자의 역할과 이를 따르는 불자들의 종교적 자아성취 및 희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제공덕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교관련 분과토론에는 미국, 독일, 브라질, 네덜 등 다양한 국적, 종교를 가진 참석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응으로 토론에 참여,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 '서구여성 불교관' 연구 과제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불교인구와 이웃종교 관련 분과토론들이 범지역적·이론적 주제로 이뤄졌음을 고려할 때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불교현황만은 다른 이번 대회의 불교분과는 다소 제한적인 논의만이 이뤄진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참가자들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폭넓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의 여성학센터 소장이자 현지 불교단체의 법사 샤론 다비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여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지속됨을 알게 됐다"며 "가능하다면 다음 대회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여성불자들의 현황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강연을 마친 지을 스님이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대형 천에 도롱뇽을 수놓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 "모성 본성은 환경과 직결됩니다"

### 지을 스님, 세계여성학대회서 기조강연

4차례에 걸쳐 총 200일이 넘는 단식으로 우리 사회에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던 지을 스님이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학자들 앞에 섰다. 바로 6월 22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 종교분과 토론에서 기조강연을 한 것이다. 다른 피부, 다른 관심, 다른 나이였지만 스님의 강연을 들은 200여명의 방청객은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여성의 힘은 텅 비고 고요하며 넓고 평탄하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균등합니다. 낱고 기르는 지구적이고 모성적인 본능은 여성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성산 도롱뇽을 위한 외로운 투쟁-지을 스님의 초록공명 운동과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님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성들이야말로 환경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미래가 환경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스님은 현재 진행중인 '도롱뇽 소송'을 꼽으며 여성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스님은 또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언뜻 보기에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가치관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제까지는 가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싸움일 뿐이었다"고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비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괴되어 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과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스님은 방청객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을 스님은 "이제 우리의 선택은 개발이나 보존이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목소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혜 수녀는 "도롱뇽 소송과 천성산 지키기 활동 등 지을 스님의 행보는 건강한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원불교 이원호 교무도 "지을 스님의 단식은 경제 논리에 의해 생명과 평화를 소홀히 함으로써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을 들은 스테판 블랙(35·미국)씨는 "성직자로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만금 갯벌이 있는 부안에서 스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 올라온 김정임(42)씨는 "아픔을 같이 하고 있어서인지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강연을 마친 지을 스님은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도롱뇽 수놓기 시연을 벌였다. 대형천에 정성스럽게 도롱뇽을 수놓은 지을 스님은 "도롱뇽이 천성산의 많은 생명과 함께 보다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심경을 표현했다.

유철주 기자 yoo@buddhapia.com



#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드립니다.

유경신을 통한 천의선도 대중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병의원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려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병의원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태종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뜰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 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율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풀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나의 바램입니다. 단돈 10원도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도와 준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 내 나이 75세 재산세 200여만원에 월 의료보험료 13만원 내며 병원에 한번 가지 않는 편한 영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에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제의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지는 못하리라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씨워서 제 갈길을 못가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탈을 쓴 늑대들에게 속지마시고 병의원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 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초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6월 27일부터 1주일간은 부산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매일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무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서울 전수도장은 월, 화, 수요일이 상담일입니다) ☎ 02)2216-6278 천의선도 대중선사 김영생 올림